| 현불 논단 |

조선왕조의궤, 오대산 환지본처를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1913년 일제 약탈로 시작된
조선왕조실록·의궤 수난사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의
반환 요구 끝에 고국 돌아와

보존 시설과 적정성 미비로
국립고궁박물관서 보관 결정
2019년 세운 의궤박물관에
환지본처하여 관리해 가야

지난 6월 29일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해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9월 10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문화재제자리 찾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는 환지본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1913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에 의해서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으로 약탈당하면서 수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외부로 대출된 74책을 제외하고 모두 불타버렸다. 1924년 27책이 경성제국대학교에 반환되고, 나머지 47책이 200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돌아왔다. 1922년 일본 궁내청으로 무단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의궤도 2011년 월정사와 환수위원회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게 반환 청구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이루었다.

문제는 그 동안 일본이 약탈해 간 문화재의 환수에 대하여 수수방관해 왔던 문화재청과 서울대학교가 오대산 사고(史庫)가 문화재를 보존과 연구할 시설과 장소의 적정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6년 관리의 주체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지정하였다. 307년 동안 오대산 사고를 지키고 보존해 왔던 월정사와 강원도민은 닭을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급기야 2021년 6월 16일 강원도 도민과 월정사가 중심이 되어 '범강원도민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찾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시대 4대사고가 생긴 이후 사고(史庫)를 지키고 수호한 주체는 불교교단의 수호사찰(월정사·전등사·안국사·각화사·보현사)의 주지와 승군이다.

2006년 오대산에서 열린 환수 고유제에서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관리 능력과 시설이 되면 오대산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9년 강원도 도비와 국비 131억을 들여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최신식 시설을 갖추어 지어놓고도 텅 빈 껍데기 공간으로 국세만 낭비하고 있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가 1972년 이후 프랑스정부를 대상으로 〈직지〉와 〈조선왕조의궤〉를 돌려달라고 할 때 외친 구호이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난 8월 12일 '조선왕조의궤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강원도 오대산에 위치한 오대산사고와 월정사 입구에 위치한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에 다녀왔다. 의궤는 볼 수 없고, 전시회 도록도 만들지 않은 실망스러운 행사였다.

임진왜란으로 4대사고 중 춘추관·충주·성주사고가 모두 불타고 전주사고만 손홍록이 정읍 내장산의 암자, 용굴암과 은봉암에 피신을 시켜 소실을 막았다. 조정에서는 전주사고를 승병장 서산대사가 주석한 묘향산 보현사 청허방장이 있는 금강굴에 봉안하여 전화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전란 후 선조 39년(1606)에 전주사고본을 모본으로 3부를 더 제작하여 춘추관·적상산·정족산·태백산·오대산에 봉안하였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다"는 조상의 지혜에 따라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전국 삼재(三災) 불입처에 건립되었다. 정부는 열악한 강원도의 문화 예술의 육성지원에 앞장서는 문화정책으로 지방문화 분권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마땅히 조선왕조실록·의궤를 오대산으로 환지본처해야 한다.

社 說

세종신도시 광제사에 거는 기대

세종신도시 광제사의 대웅전과 한국불교체험관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종 광제사 건립불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세종 광제사 불사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이 종단의 핵심종책과제로 신도시 포교거점 사업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석불사 주지 경륜 스님이 원력을 보탰고 여러 스님들이 건립불사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탄력을 받았다. 2014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 건축허가 승인을 비롯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 2020년 첫 삽을 떴다.

세종 광제사는 향후 신도시 포교의 구심점이 될 핵심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신도시 포교분야에서 상당한 약점을 드러내왔다. 기본적으로 사찰의 대부분이 산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종교부지를 확보해 보다 본격적으로 포교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종단불사로 추진 중인 세종 광제사는 신도시라는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함께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을 이끌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상량식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신도시에 전통문화를 향유할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세종 광제사 건립불사가 원만회향해 한국불교 중흥을 견인할 거점도량으로 성장하길 발원해 본다.

영화·미디어 포교에 지속적 관심을

한국 첫 국제불교영화제인 세계일화국제불교제가 8월 30일 폐막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15개국 62편의 영화가 전편 무료로 상영됐다.

코로나19 기간에도 5일간 누적관객 1800여 명에 영화 예매율은 80%에 달했다. 특히 '파필리오의 부다'를 포함한 11개 작품이 매진되는 등 첫 개최임에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관 수용 50%만 입장하는 상황에서의 놀라울 만한 성과다. 코로나19로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영화를 접하고 호평을 쏟아냈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포교 방안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산사음악회 외에는 불교계가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포교가 드물었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만 머물러 왔다.

불교 영화 또한 그 범주에 머물렀다. 유명 영화들 사이에서 일종의 종교영화 맛보기 수준이었다. 이번 국제불교영화제의 성공적 운영은 불교영화가 새로운 문화포교의 수단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남은 과제는 많다. 2회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양질의 영화를 섭외하고 출품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활용해 불교영화 외에도 일반 사회의 미디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불교계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전법사들이 수난 속에 한 명 한 명씩 찾아다니며 포교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잘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가 불교에 대한 호감을 높이고, 이들을 사찰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불교 중흥의 장이 될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노 거사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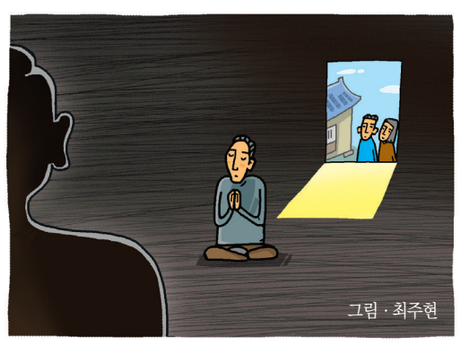
작년 추석 무렵 한 노부부가 법당을 찾아왔다. 거사님은 80이 넘었지만 정정하신 데 반해 아내분은 걸음도 부축해야지 걸을 수 있을 만큼 보행이 힘들었고 보고 듣는 것도 어려워 보였으며 말하는 것까지 어눌하였다.

약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고 깨어난 뒤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기엔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공덕으로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이렇게라도 살아주어서 고맙지요."라며 거사는 얼굴에 굵은 주름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후 추석명절이 가까워 오는 근래 거사님은 또 법당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였다. 아내분의 안부를 물으니 "갈수록 같이 다니기는 힘들지요. 그냥 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라고 하며 엷은 미소를 짓는다.

"보살님에게 참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이신 것 같아요." 라고 미소에 응답하니 거사님은 손사래를 친다. "아휴, 아닙니다. 고생만 많이 시켜서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제사가 많았거든요."

거사는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제가



그림·최주현

장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셨어요. 아들이 귀한 집이었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시집와서 아들 셋을 낳으셔서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셨지요. 게다가 제가 특히 장손이다보니 유독 사랑을 더 받고 자랐습니다." 거사님은 어릴 적의 추억을 얘기하며 어린 소년의 표정이 되어 추억의 향연을 나누셨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해 감사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뒤로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참 장손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업이 많은 건지… 제 대에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사님의 표정에 수심이 드리워졌다.

거사님은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으며 아들도 결혼하여 손주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몇 년 전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거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상님들의 위패를 절에 모시고 자신과 아내의 위패까지 미리 절에 안치하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스님,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사님의 단호한 눈빛과 표정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묵묵히 거사님의 빈 잔에 뜨거운 차를 채워 드렸다. 뜨거운 차가 넘치지 않도록, 잘 드실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며 차를 따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5~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